



김민석 국무총리, '천원의 아침밥' 현장 방문

- 김 총리,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찾아 학생들과 아침 식사하며 소통
- “고물가 시대, 든든한 아침 한끼가 하루의 힘…지원 식수 지속 확대”

-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7일(월) 오전, 성균관대학교의 '천원의 아침밥'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.
 -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가 청년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'천원의 아침밥' 사업의 현장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.
 - '천원의 아침밥'은 정부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('23년 기준, 57.2%)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.
 - 참여수요 확대로 2023년부터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렸으며 올해는 전국 208개 대학에 469만 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.
- ※ (성균관대) '22년부터 '천원의 아침밥' 사업 참여 중. 올해 12만 식 제공 목표

<천원의 아침밥 개요>

- ▶ (지원대상)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등 전국 모든 대학교 재학생
- ▶ (지원내용) 쌀·쌀가공식품을 활용한 일반식(백반, 덮밥 등), 간편식(김밥, 컵밥 등) 제공
- ▶ (지원단가) 조식 단가 중 정부가 2000원 지원 → 학생 부담 1000원
* 1식 기준(4000원 이상) : 학생 1000원 + 정부 2000원 + 지자체(1000~3000원 자율) + 학교(1000~3000원 자율)
- ▶ (지원예산) ('23) 2,371백만원 → ('24) 8,116 → ('25) 9,727 → ('26 정부안) 11,126
- ▶ (지원식수) ('23) 233만식 → ('24) 393 → ('25) 469 → ('26 정부안) 540

- 김민석 총리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은행골식당에서 학생들과 '천원의 아침밥'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.

- 학생들은 “저렴하면서 질 좋은 아침식사를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지만 수량이 품절일 때가 있어 못 먹고 돌아갈 때는 아쉽다”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.
 - 이에 대해 김 총리는 “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밥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의 시작”이라며 “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에 지원 식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 - 아울러 “‘천원의 아침밥’ 외에도 학생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, 다른 청년정책도 세심하게 검토해 대학 생활에 활력이 생기도록 지원하겠다”고 약속했다.
- 한편, 정부는 내년 ‘천원의 아침밥’ 사업을 올해 대비 20% 확대(+90만식)할 예정으로 총 540만 식을 지원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	책임자	팀 장	유호석 (044-200-6332)
		담당자	사무관	김차경 (044-200-6343)

